

Chapter 6: Four Foundational Aspects of the Millennial Kingdom

천년왕국의 네가지 기초가 되는 영역들

I. GOD'S ORIGINAL PLAN: A FAMILY OF LOVE WHO RULES THE EARTH TOGETHER

하나님의 원 계획: 사랑의 가족으로 이 땅을 함께 다스린다

- A. Why did God create the earth and the human race? From eternity, there was a yearning in the Father's heart to have a family that lives in love as sons of God and as the Bride of Christ.

¹⁸I will be a Father to you, and you shall be My sons and daughters... (2 Cor. 6:18)

⁷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하나님은 왜 땅과 인간을 지으셨을까?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안에 사는 가족을 소유하실 열망을 가지고 계셨다.

¹⁸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후6:18)

⁷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19:7)

- B. The Father's original plan was to have a family who would rule all creation with Him. God has given His people an eternal "dominion mandate" to manifest His glory in all created order.

²⁶Let Us make man in Our image...let them have dominion...over all the earth...²⁸God said,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have dominion..." (Gen. 1:26-28)

³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⁴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⁵You...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⁶You made him to have dominion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Ps. 8:3-6)

²¹All things are yours ²²whether Paul or Apollos...the world or life...or things present or things to come--all are yours. ²³You are Christ's, and Christ is God's. (1 Cor. 3:21-23)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와 함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가족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창조된 질서 안에 그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영원한 통치위임권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

²⁶우리의 형상을 따라...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²⁸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1:26~28)

³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⁵그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⁶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8:3-6)

²¹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²²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베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것이나 장래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²³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3:21-23)

C. The Father was thinking of us when preparing the kingdom from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³⁴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t. 25:34)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기초들로부터 왕국을 준비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

³⁴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4)

II. FOUR FOUNDATIONAL ASPECTS OF THE MILLENNIAL AND ETERNAL KINGDOM 천년 그리고 영원한 왕국의 네 가지 기초적인 영역들

A. At the second coming, Jesus will bring together forever four aspects of His kingdom. They are the supernatural, physical, political, and relational dimensions in the Father’s eternal plan.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수님은 그의 왕국의 네 가지 영역들을 함께 영원히 가져오실 것이다. 그것들은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관계적인 면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안에 있는 것들이다.

B. There are four aspects of God’s kingdom that are necessary for His people to experience His fullness on the earth for all eternity. These aspects will first converge together in the millennial kingdom as they affect every sphere of life. Biblical hope includes all four aspects together. All four elements are essential to have a true picture of our experiences in the kingdom in the future.

하나님의 왕국에는 네 가지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영원히 그분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것에 필요하다. 이 모습들은 천년 왕국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나아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경의 소망은 이 네 가지 모습들을 다 포함한다. 네 가지의 모든 모습들은, 미래에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들에 대한 실제적 그림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C.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to earth brings the supernatural eternal dimension to the millennial kingdom. It will include the supernatural aspects as seen in our resurrected body.

이 땅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은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차원을 천년왕국으로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부활체를 입은 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D. The *garden of Eden* being restored brings a physical paradise aspect to the millennial kingdom with a renewed environment (agriculture, animals, atmosphere, etc.) with physical pleasures.

회복된 에덴동산은 천년 왕국에 물리적인 낙원의 모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동반한 새로워진 환경(농업, 생태계, 대기권등) 을 포함할 것이다.



- E. The **kingdom of David** brings the political social dimension (social institutions, economic, educational, family, media, arts, technology, etc.). Righteousness and justice will be established in every sphere of life as every national government on earth is brought under Jesus' authority.

다윗의 왕국은 정치적, 사회적인 차원을 가져온다. (사회기관들, 경제, 교육, 가정, 방송매체, 예술, 첨단기술 등) 이 땅의 모든 국가정부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 F. The **house of prayer** will bring a intimate relational dimension as the millennial temple will be the center of the worldwide prayer movement. God's people will encounter God and partner with Him in ruling the nations through intercession.

천년 성전이 세계 기도 운동의 중심지로 되어질 때, 기도의 집은 친밀한 관계의 차원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역하며 중보기도를 통해 국가들을 다스리게 된다.

- G. The term heaven is often used to refer to our eternal future with God. Our view of the eternal heaven must encompass all four aspects highlighted in Scripture. Most people have a deficient view of heaven. The reason that many are not interested in heaven is because they misunderstand it as being separated from this material earth. If we think wrongly about heaven, then we will not think of it at all. One reason some turn to postmillennialism is in their hunger for a greater expression of the kingdom on the earth.

천국의 의미는 흔히 하나님과의 영원한 미래를 의미한다. 영원한 천국은 성경에 강조된 네 가지의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에 대해 불충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천국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유는 이 현세와 동떨어진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후천년주로 빠지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의 거대한 실현이 그들의 갈망이다. 또, 어떤 이들은 천국에 대해 불충분한 관점을 가지는데 곧 천국은 이 땅과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NEW JERUSALEM: SUPERNATURAL ETERNAL ASPECTS OF THE KINGDOM 새 예루살렘: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왕국의 모습들

- A. When the New Jerusalem comes to the millennial earth, then heaven is literally on earth. In other words, at this time heaven and earth come together and release a supernatural dimension of resurrection life on the earth. The New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resurrected saints will live.

¹²*The New Jerusalem,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Rev. 3:12)*

새 예루살렘이 천년지구(지상예루살렘)에 오면 이는 곧 천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점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초자연적인 차원의 부활생명을 이 땅에 풀어놓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부활한 성도들이 살 장소이다.

¹²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 B. The New Jerusalem will descend to the millennial Jerusalem connecting the two Jerusalems. Jesus' throne will be in both the millennial Jerusalem (temple) and also in the New Jerusalem.

“I heard Him speaking to me from the Temple [Millennial Temple]...⁷He said,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 and the place of the soles of My feet, where I will dwell in the midst of the children of Israel forever. (Ezek. 43:6-7)

³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shall be in it [New Jerusalem]. (Rev. 22:3)

새 예루살렘은 천년 예루살렘에 강림하며 두 예루살렘은 연결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는 천년 예루살렘(성전)과 새 예루살렘 모두안에 있을 것이다.

⁶성전(천년왕국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⁷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겔43:6-7)

³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22:3)

- C. Does Jesus have one throne or two? Is it on the millennial earth or in the New Jerusalem? Yes! His throne of glory is on earth and in Heaven. ***It is one throne with two expressions.*** I suggest that Jesus' throne of glory is a vast governmental complex with the “north end” of it extending into the New Jerusalem and the “south end” of it based in the millennial temple in Jerusalem.

³¹When the Son of Man comes...then He will sit on the Throne of His glory. (Mt. 25:31)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인가 둘인가? 과연 보좌는 천년지구(지상예루살렘)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인가? 답은 둘다이다. 그렇다! 그분의 영광의 보좌는 이 땅과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한 보좌인 것이다. 나의 견해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거대한 정부이며 북쪽의 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며 남쪽의 끝에 이르는 천년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³¹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마25:31)

- D. The New Jerusalem descending to earth will create a new situation in which the spiritual and natural realm will operate together dynamically. This will cause an open heaven over the earth as the veil is lifted. A tidal wave of glory will spread to all nations from millennial Jerusalem.

¹⁴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Hab. 2:14)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은 영적이며 및 자연적인 영역이 함께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베일로 가려진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하늘이 열리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영광의 파도는 천년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퍼질 것이다.

¹⁴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합2:14)



- E. In Bethel, only 12 miles north of Jerusalem, Jacob saw a place in which a supernatural ladder extended from earth to the gate of heaven. He saw angels ascend and descend between the heavenly and earthly realms. Jacob's ladder reveals the connection of these two realms.

¹²He dreamed...a ladder was set up on the earth, and its top reached to heaven; and there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¹⁷He said, "How awesome is this place!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and this is the gate of heaven!" (Gen. 28:12-17)

예루살렘에서 1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벰엘에서 야곱은 초자연적인 사다리가 늘어져서 땅에서 하늘 문으로 닿은 것을 보았다. 그는 천사들이 하늘과 땅의 영역들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야곱의 사다리는 이 두 영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¹²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¹⁷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28:12-16)

- F. In Gen. 2-3, God walked with Adam in face to face fellowship as the spiritual and natural realms operated together. A veil was created between these two realms when Adam sinned. This veil will be lifted at Jesus' coming as things in the heavenly and earthly realms come together.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대면하며 걷는 친교를 가지셨고 여기서는 영적이며 자연적인 영역이 함께 작용하였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두 영역 사이에는 베일이 가리워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영역들을 합치실 때 이 베일은 들어 올려질 것이다.

- G. The New Jerusalem will descend to the earth in two stages. First, it will descend at the second coming to begin the Millennium (Rev. 21:10) then it descends after the Millennium (Rev. 21:2).

새 예루살렘은 두 국면으로 땅에 내려올 것이다. 첫째,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천년 왕국이 시작하면서 임할 것이고 두번째는 천년 왕국 이후 다시 임할 것이다.

IV. THE GARDEN OF EDEN: THE PHYSICAL PARADISE ASPECTS OF THE KINGDOM 에덴동산: 물리적인 낙원 왕국의 영역

- A. The *garden of Eden* being restored brings a physical paradise aspect to the millennial kingdom with a renewed environment (agriculture, animals, atmosphere, etc.) with physical pleasures. We will live in a resurrected body with supernatural capacities enjoying a garden of paradise that is filled with beauty and pleasure. God wants to live forever with His people in a physical paradise.

³*For the LORD will comfort Zion, He will comfort all her waste places; He will make her wilderness like Eden, and her desert like the garden of the LORD...* (Isa. 51:3)

³⁰*I will multiply the fruit of your trees and the increase of your fields...*³⁵*They will say, "This land that was desolate has become like the garden of Eden..."* (Ezek. 36:30-35)

¹*The wilderness and the wasteland shall be glad for them, and the desert shall rejoice and blossom as the rose; ²*it shall blossom abundantly...the glory of Lebanon shall be given to it... They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excellency of our God...*⁶*Then the lame shall leap...for waters shall burst forth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Isa. 35:1-6)*

회복된 에덴 동산은 천년 왕국에 물리적인 낙원의 모습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환경(농업, 동물, 분위기 등)과 육체적 즐거움 등을 동반한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활체를 입고 살 것이며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채워진 낙원의 정원을 즐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물리적인 낙원에서 살기를 원한다.

³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51:3)

³⁰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³⁵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겔36:30~35)

¹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²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⁶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사35:1~6)



- B. The garden of Eden will be established on the millennial earth with a corresponding reality around God's throne in the New Jerusalem including the River of Life and Tree of Life. The River and the Tree in both realms are two manifestations of one grand reality (Ezek. 47:1-12).

¹There was water flowing from under...the temple...⁵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cross...⁸He said to me: "This water flows toward the eastern region...when it reaches the sea, its waters are healed.
⁹It shall be that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wherever the rivers go, will live...Everything will live wherever the river goes...¹²Along the bank of the river...will grow all kinds of trees used for food... they will bear fruit every month, because their water flows from the sanctuary. Their fruit will be food, and their leaves for medicine." (Ezek. 47:1-12)

¹He showed me a river of water of Life...proceeding from the throne...²On either side of the River, was the Tree of Life, which bore 12 fruits... The leaves of the tree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³There shall be no more curse... ⁴ They shall see His face. (Rev. 22:1-4)

에덴 동산은 천년 지구에 세워질 것인데 이는 새 예루살렘에 있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생명 나무와 생명의 강을 포함한다. 이 강과 나무는 한 거대한 실체를 표현하는 것들이다.(겔47:1~12)

¹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성전... ⁵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물이 되리라...⁸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⁹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¹²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겔47:1-12)

¹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²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³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⁴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22:1-4)

- C. Scripture begins and ends with God living face to face with His people in the garden of Eden. In Gen. 1-2 Adam walked with God in face to face fellowship in a garden. In Rev. 21-22, God again lives with His people face to face in a garden. The River of Life and the Tree of Life seen in Gen. 1-2 are seen again in Rev. 21-22. What God originally intended in the first two chapters of the Bible is fully restored in the last two chapters (Rev. 21-22) as the curse of sin is removed.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에덴동산에서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창세기 1-2장에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밀함으로 동행했다. 계시록 21-22장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산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대면하며 동행하신다. 생명의 강과 생명의 나무는 창세기 1장-2장에서 나오며 다시 계시록 21-22장에서 등장한다. 성경의 첫번째 책의 처음 두 장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곧 계시록 21-22장에서 죄의 저주가 제거됨과 함께 온전히 회복된다.

- D. The kingdom of God fulfills man's utopian dream of a perfect world where everything is bliss. If we miss the revelation of the physical garden of Eden aspect of our salvation, then we will fail to see the glory of Jesus as our creator from Gen. 1-2.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행복하며 완전한 인간이 꿈꾸는 완벽한 이상적인 세계를 성취시킨다. 만일 우리가 물리적인 에덴 동산의 계시를 놓친다면, 창 1-2장에 나오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될 것이다.

- E. When Adam sinned, all creation was subject to futility or weakness under sin's curse also called the bondage of sin's corruption (v. 21). Jesus reversed this with His great salvation.

¹⁹For the earnest expectation of the creation eagerly waits for the revealing of the sons of God. ²⁰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utility...²¹the creation itself also will be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corruption into the glorious liberty of the children of God. ²²We know the whole creation groans and labors with birth pangs until now. (Rom. 8:19-22)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피조물이 죄의 타락의 노예(21장)이라고도 불리는 죄의 저주 아래서 무익함과 연약함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분의 큰 구원하심으로 바꾸셨다.

¹⁹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²⁰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²¹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²²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롬8:19-22)

- F. The Millennium has the convergence of the natural and supernatural aspects of God's kingdom.

⁶The wolf also shall dwell with the lamb...the calf and the young lion...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⁷The cow and the bear shall graze...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⁸The nursing child shall play by the cobra's hole,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in the viper's den. ⁹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Isa. 11:6-9)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이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⁶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송아지와 어린 사자와...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⁷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⁸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⁹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11:6-9)

V. THE KINGDOM OF DAVID: THE POLITICAL SOCIAL ASPECTS OF THE KINGDOM 다윗 왕국: 왕국의 정치적 사회적 영역

- A. The *kingdom of David* brings the political social dimension (social institutions, economic, educational, media, arts, technology, etc.). Righteousness and justice will be established in every sphere of our corporate life together and in every government on earth. This social and political infrastructure will include varying responsibilities and spheres of authority for each person.

다윗의 왕국은 정치적, 사회적 면이 있다 (사회 기관들, 경제, 교육, 매체, 미술, 기술 등).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립될 것이며 또한 이 땅의 모든 정부들에도 성립될 것이다. 이 사회적 정치적 기반들은 각 개인에게 주어질 다양한 책임들과 권세의 영역들을 포함할 것이다.

- B. The kingdom of David is sometimes used as synonymous as the throne of David. It speaks of that which is political, earthly, and Jewish. Jesus will forever be the human son of David.

다윗의 왕국은 때때로 다윗의 보좌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왕국이 정치적이고, 지상적이고, 유대적인 왕국이 될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으로서 다윗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 C. In the millennial kingdom, Jesus fulfills the OT prophecies of God establishing Him on the throne of David to bless all the nations (2 Sam. 7:13, 16, 23:5; Isa. 9:6-7; 55:3; Ps. 89:3-4; 34-37; Jer. 23:5-6; 30:8-9; 33:14-17, 20-21; Ezek. 37:24-25; Hos. 3:4-5; Amos 9:11).

³²*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Lk. 1:32)*

³¹*He will sit on the Throne of His glory. ³²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Mt. 25:31-32)*

천년 왕국때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언 곧 자신을 다윗의 보좌에 앉으사 열방을 축복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이루실 것이다 (사무엘하 7:13; 16, 23:5; 사 9:6-7; 55:3; 시. 89:3-4; 34-37; 예. 23:5-6; 30:8-9; 33:14-17, 20-21; 겔. 37:24-25; 호 3:4-5; 암 9:11...)

³²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눅1:32)

³¹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³²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마25:31-32)

- D. Jesus will sit on the throne of David as He rules all the nations with righteousness and justice.

⁶*Unto us a Child is born...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⁷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there wi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to order it and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justice from that time forward, even forever. (Isa. 9:6-7)*

⁴*With righteousness He shall judge the poor, and decide with equity...⁵Righteousness shall be the belt of His loins, and faithfulness the belt of His waist. (Isa. 11:4-5)*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열방을 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⁶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⁷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사9:6,7)

⁴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⁵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11:4-5)

- E. In the Millennium, all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e saved and worship Jesus (Ps. 72:11; 102:15; 138:4; 148:11; Isa. 62:2; Rev. 21:24) and base their national governments on God's Word.

¹¹All kings shall fall down before Him; all nations shall serve Him. (Ps. 72:11)

천년 왕국에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다 (시 72:11...). 그리고 그들의 나라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것이다.

¹¹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72:11)

- F. Jesus as King of kings, will personally govern a worldwide kingdom from Jerusalem in partnership with resurrected saints who rule with Him (Rev. 2:26-27; 3:21; 5:10; 20:4-6; 22:5; Mt. 19:28; 20:21-23; 25:23; Lk. 19:17-19; 22:29-30; 1 Cor. 6:2-3; 2 Tim. 2:12; Rom 8:17).

왕중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직접 친히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전세계적인 자신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계 2:26-27...)

- G. We will be involved with Jesus in establishing the intricacies of the worldwid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His government to rule all nations. We will be involved with His government in a deep and personal way. It will bring great significance to our lives as we partner with the Lord.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계의 정교한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정부가 열방을 다스리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정부에 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VI. THE HOUSE OF PRAYER: THE INTIMATE RELATIONAL ASPECTS OF THE KINGDOM

기도의 집: 천년왕국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영역

- A. The **house of prayer** will bring a spiritual dimension as the millennial temple will be the center of the worldwide prayer movement. This brings an intimate relational dimension to the millennial kingdom as we encounter God and partner with Him in ruling through intercession.

천년왕국 성전이 전 세계 기도운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기도의 집은 영적인 차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중보를 통해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천년왕국의 친밀한 관계의 차원을 더하게 된다.

- B. The **house of prayer** includes the millennial temple with the Holy of Holies as the center of the worldwide worship and prayer movement. This brings an intimate relational aspect to the millennial kingdom as we encounter God and partner with Him in ruling through intercession.

⁷For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Isa. 56:7)

¹³And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Mt. 21:13)

천년왕국 때 기도의 집은 전 세계 예배 및 기도 운동의 중심지인, 지성소를 가진 천년 성전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중보를 통해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천년왕국의 친밀한 관계의 차원을 더하게 된다.

⁷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56:7)

¹³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하시니라 (마21:13)

- C. God speaks and moves our heart. Then we speak and move His heart. The result is that God's resources (His wisdom, provision, direction, power, unity, etc.) are released into the earth.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분들의 자원(그분의 지혜, 공급, 방향, 능력, 연합 등등)이 땅에 풀어주신다.

D. Jesus' throne in the millennial temple or house of prayer will be the center of His government.

¹²*The Man...shall build the temple...and shall sit and rule on His throne... (Zech. 6:12-13)*

⁴*The glory of the LORD came into the temple [Millennial temple]...⁶I heard Him speaking to me from the temple...⁷He said,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 and the place of the soles of My feet, where I will dwell in the midst of the children of Israel forever." (Ezek. 43:4-7)*

천년성전안에 있게 될 예수님의 보좌, 또는 기도의 집은 예수님의 통치의 중심 센터가 될 것이다.

¹²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¹³그가 여호와의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슌6:12-13)

⁴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천년성전)으로 들어가고...⁶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⁷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겔43:4-7)

E. Human history began in a prayer meeting in the garden of Eden (Gen. 3:8). Israel as a nation began at a prayer meeting after they were delivered from Egypt (Ex. 19:6-20). The primary occupation of Israel was to build a prayer tent in the wilderness (Ex. 25). Jesus began His public ministry in a prayer meeting in the wilderness (Mt. 4) and ended it in a prayer meeting in the garden of Gethsemane (Mt. 26). The church in Acts began in a prayer meeting (Acts 1-2).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의 기도모임에서 시작되었다(창 3:8).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부터 구출된 후 기도로 나라를 시작하였다(출 19:6-20). 이스라엘의 최 우선적 임무는 광야에서 기도 성막을 짓는 일이었다(출 25).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마 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다(마 26장). 사도행전의 교회 역시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다(행 1-2장).

F. Natural history ends with the people of God in a global prayer movement.

¹⁷*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7)*

¹⁰*Sing to the LORD a new song, and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you who go down to the sea...¹¹Let the wilderness and its cities lift up their voice, the villages...let them shout from the mountains...¹³The LORD shall go forth like a mighty man; He shall stir up His zeal like a man of war. He shall cry out...He shall prevail against His enemies... (Isa. 42:10-13)*

자연적 역사는 세계적 기도 운동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시작한다.

¹⁷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계22:17)

¹⁰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¹¹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¹³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사42:10-13)



VII. SUMMARY 요약

- A. Israel through history has focused on the earthly dimension of the kingdom without the heavenly. They think of the Messiah coming to restore the throne of David with its worldwide government based in Jerusalem that will reform the whole world and restore it to the garden of Eden. They are not thinking of resurrected bodies and angels.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늘(초자연적인) 의 차원이 없는 땅의 차원의 왕국에만 치중하였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세계 정부를 세우며 전세계를 혁신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러나 천사와 부활한 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 B. The Church has focused on the heavenly dimension with resurrected bodies in heaven with the angels. They do not think much about reigning with Jesus on the throne of David over all nations and restoring the earth to the conditions of the garden of Eden.

교회는 반대로 하늘의 영역들, 곧 천국에서의 부활한 몸과 천사들에 대해서 치중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윗의 보좌에서 열방을 다스리고 이 땅을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 C. If the Church misses the garden of Eden dimension, then we will fail to see the glory of Jesus our Creator in Gen. 1-2. If we miss the revelation of the Davidic kingdom restored from Jerusalem to all nations, then we will fail to see Jesus as King of the nations.

만일 교회가 에덴 동산의 차원을 놓친다면 우리는 곧 창세기 1-2장에 나온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열방으로 회복된 다윗 왕국의 계시를 놓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열방의 왕으로 보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 D. Jesus is both King of the nations and head of the Church. He is both the human son of David and the divine Son of God. We must see both the Christian view of a heavenly kingdom with the New Jerusalem and streets of gold and the Hebrew view of the Davidic kingdom. We need all four aspects to have our hope fully anchored in Scripture.

예수님은 열방들의 왕이며 또한 교회의 머리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적 아들이다. 우리는 하늘 왕국의 이 두 가지의 기독교적 관점들을 보고 또한 새 예루살렘과 황금길, 그리고 다윗 왕국에 대한 히브리적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이 모든 네가지 모습들을 필요로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성경에 기초하여야 한다.

- E. As Gentile believers, our most natural paradigm is to think of worshipping Jesus as God in the supernatural conditions of heaven. We emphasize Jesus' deity as the Son of God. Whereas the Jewish paradigm, speaks of reigning with the Messianic King as a man in the natural conditions of the earth. They emphasize the Messiah's humanity as the son of David. ***The full truth is only seen when these two paradigms are brought together.***

이방 기독교인들로서 우리의 가장 자연적인 생각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서 유대적 사고는 이 땅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메시아적인 왕이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여기며 그의 인간적 속성을 강조한다. **온전한 진리는 이 두 관점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보이게 된다.**

- F. Jesus will rule the earth with the natural human processes not suspended, yet significantly enhanced by the supernatural dimension of the Spirit.

예수님은 자연적이며 인간적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동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